



07-41 (통권 168호)
2007.10.12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IMF, 미국발 신용경색 위기의 확산 가능성 우려
- 8월 광의유동성 증가율 다시 상승 추세

경영 노트

- 성공하는 기업의 '혁신 키워드'

사회 트렌드

- Q세대여 행동하라
- 국내 4년제 대 학생당 교원수 OECD 꼴찌

저널 브리프

- 후쿠다 내각, 따뜻한 개혁 추진

洗心錄

- 믿음과 신뢰의 경영

□ IMF, 미국發 신용경색 위기의 확산 가능성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화와 불평등’에 관한 분석 자료에서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향후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급속한 자금 흐름과 해외 금융 상황의 위험에 대한 노출, 대규모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發 신용경색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급속히 확대된 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한편, 금융 국제화 등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발전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함

□ 8월 광의유동성 증가율 다시 상승 추세

-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 인상에도 불구하고 광의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시중 유동성의 증가율이 8월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8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이 만기 2년 이상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데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한 가운데 광의유동성(L, 말잔)은 증권사 RP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함
 - 이러한 시중유동성의 급증은 대출채권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CD 발행과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데에다 국고채가 월중 상환 실적이 없는 가운데 순발행을 보인 데 기인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행은 이러한 시중 유동성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주요국 금리 인하 등으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목표수준을 지난 달에 이어 연 5%로 유지하였음

□ 성공하는 기업의 '혁신 키워드'*

- (개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성공하는 기업의 혁신 키워드는 획기적 변신을 위해 '크게 생각하라'(Think Big)라는 것임
 -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특집 섹션에서, 작은 부분의 변화보다는 획기적 변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
 - 기존 차량의 품질 개선과는 질적으로 다른 친환경자동차라는 신시장을 개척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가 대표적 성공 사례임
- (손쉬운 혁신 방안) 탄탄한 기술력의 뒷받침 없이도 손쉽게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데이비드 아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함
 - ① 고객이 원하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 ⇒ 웨스틴 호텔의 경우처럼 오리털 이불과 2개의 샤워실 등을 갖춘 럭셔리룸을 개발, 고소득층의 수요를 흡수한 사례
 - ② 경쟁자보다 빠르게 공급하라
 - ⇒ 의류업체 자라(ZARA)의 경우처럼 경쟁업체보다 신제품을 빨리 공급하는 속도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성공한 사례
 - ③ 소홀하게 취급한 부문에 주목하라
 - ⇒ 각종 곡물을 집어넣고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를 포함시켜, 기존의 초콜릿바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여성 고객을 흡수한 사례
 - ④ 부분보다 전체 시스템을 생각하라
 - ⇒ '윈도'라는 컴퓨터 운영체계에 익스플로러,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묶어 판매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
 - ⑤ 상품의 새로운 용도를 홍보하라
 - ⇒ 진통제로만 여겨졌던 아스피린에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매출액이 급증한 사례
 - ⑥ 상품의 용기를 획기적으로 바꿔라
 - ⇒ 기존의 떠먹는 요구르트와 차별되는 짜먹는 요구르트를 개발해 소비자의 폭발적 호응을 얻은 사례
 - ⑦ 숨겨진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라
 - ⇒ 기존 고급 커피의 개념을 길거리로 끌어내 성공한 스타벅스의 사례

*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2007.9.18)에 게재된 기사를 요약, 편집한 것임

□ Q세대여 행동하라

-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오늘날의 미국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 'Q세대'를 제시하면, “온라인 세계에만 갇혀 있지 말고 실제의 세상으로 뛰쳐나와 행동으로 보여라”고 주문
 - 그는 요즘 미국의 20대는 너무 조용하기(quiet) 때문에 그들을 'Q세대 (Generation Q)'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는 9·11테러 이후 안전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많은 학생이 엘살바도르의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거나 에이즈 치료 봉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에 감명을 받았지만 젊은이들이 자신과 국가의 이상을 '너무나도 조용하게' 추구하고 있는 점에는 당혹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음
 - 역사상 '가장 탐욕스러운(greediest) 세대'인 조지 W 부시 집권기의 기성세대가 엄청난 재정적자, 사회보장 결여, 환경파괴의 여파를 젊은 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텐데 젊은이들은 e메일이나 온라인 청원 같은 가상세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의 걱정임
 - 그는 이어 “미국은 20대의 이상주의와 행동주의가 주는 충격이 필요하다”며 젊은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을 주문

□ 국내 4년제 大 학생당 교원수 OECD 꼴찌

- 국내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1.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대학생 수는 172만 7,687명인 데 반해 총 전임 교원은 5만 5,343명에 불과
 - 이같은 교원 1인당 학생수(31.2명)는 지난 2004년 기준 OECD 평균 15.5명의 두 배가 넘는 것이며, OECD 비회원국인 브라질(13.3명)과 러시아(13.4명)에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임
- 스웨덴이 9.0명으로 1위였고, 일본(11.0명), 핀란드(12.4명), 독일(12.7명) 등도 상위권에 속함
 - 하위권인 그리스의 경우도 28.1명으로 교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후쿠다 내각, 따뜻한 개혁 추진*

- (현황) 후쿠다 야스오 일본 신임 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가진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따뜻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 이전 내각에서의 ‘흔들림 없는 개혁’과는 차별된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 이는 그 동안의 일본의 강도 높은 개혁으로 유발된 도시·농촌(지방)간, 계층 간 격차 확대를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일본 내 개혁 후퇴 우려 고조) 후쿠다 신임 총리는 분배 중시, 파벌정치의 부활 등 일본 내에서는 개혁 후퇴 우려가 고조
 - 분배 중시 : 후쿠다 총리의 경우 자민당 총재 선거 유세에서 ‘뭐든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고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고령자 의료비 부담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분배정책을 중시
 - 파벌정치의 부활 : 후쿠다 신임총리 당선은 당내 9개 파벌 중 경쟁자인 아소 다로의 파벌 이외의 8개 파벌의 지지에 의한 결과로 코이즈미 前총리의 파벌 타파 이후 6년 만의 파벌정치 부활임

- (전망)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총수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자민당 정권에서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똑같다’라고 지적하는 등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국이 불안정할 전망이다
 - 제1 야당 민주당과의 갈등 고조 : 오는 11월 1일 시한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 심의나 2008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제1 야당 민주당의 반대가 거셀 것임
 - 2008년 상반기 조기 총선 가능성 고조 : 2008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정부기능 마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후쿠다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 이 글은 『한경 Business』(2007.10.15)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믿음과 신뢰의 경영

중국 『여씨춘추』에 “갈택이어(竭澤而魚)’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그 훗날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이고,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서 짐승들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뒷날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竭澤而漁 豈不獲得 而明年無魚 焚藪而田 豈不獲得 而明年無獸, 갈택이어 기부획득 이명년무어 분수이전 기부획득 이명년무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다는 비유로 회자된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고객, 직원, 주주와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실의 계절에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올해 두산 베어스는 선수들의 연봉이 프로야구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아서 전문가들은 두산이 하위로 처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결과는 2위를 기록하였다.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무엇보다 두산 김경문 감독의 믿음의 야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김 감독은 한 선수가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하루하루의 1승에 집착해서 즉시 전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야구철학을 구사한다. 김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선수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투혼을 발휘하여 두산은 성공적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히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 데도 견고한 성장세를 자랑하는 우량건설사가 있어 장안의 화제다. 업계에서는 이 건설사가 공기 단축 및 공정의 과학화에 의한 원가 경쟁력 등이 입주자와 건축주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즉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일을 처리하는 유능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허바드(Elbert Hubbard),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서